

1200년만에 고...

중국불교의 4대 성지중 하나인 구화산 지장도량을 일군 신라왕자 김교각스님(金交脚 896~794)이 1천 2백년만에 귀국한다.

중국 구화산의 지장보살로 널리 알려진 신라왕자 김교각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형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경복궁내 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대륙으로 간 신라대각 김교각 유물 귀환전, 신라왕자 김교각전'은 구화산에 소장된 김교각스님 관련 유물과 사진자료 2백여점을 국내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자리다.

전통으로 전해오는 등신불에 대한 신앙적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등신불 개함과정도 공개한다.

김교각스님 탄생 1천 3백주년에 맞춰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7일 오전 11시 구화산 육신보전에 안치된 김교각스님의 육신불상(지장보살상)과 똑같은 형태로 모조된 지장보살상의 침안식으로 문을 연다. 이 지장보살상은 구화산 육신보전에 1천 2백년간 안치돼 온 육신불상으로 이번 전시를 위해 중국정부 특별히 제작해 김교각전추진위에 기증한 것이다.

중국에서 들어 오는 유물과 국내

탄신 1천 3백 주년을 기념하고 중국을 비롯 동남아시아권 지장신앙의 신앙과 발달에 미친 김교각스님의 영향과 업적을 고찰 민족의 상승으로 재발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데 이번 전시의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 전시와 관련 학술세미나 구화산 유적 성지순례(10월22~27일) 등의 부대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 전시회에 이어 부산 광주 대구 경주 등 지방에서도 순회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신라왕자 김교각전'에는 구화산 인덕(仁德)방장을 비롯 한



지장혜 김교각스님이 수행할때 신었다고 전해지는 지장혜.



죽신스님 서화

최대 죽신스님의 서예작품. 모두 11장으로 구성됐다. 불경을 요약해 예서체와 전서체가 융화된 독특한 필체로 썼다.



죽신스님 서화. 최대 죽신스님의 서예작품. 모두 11장으로 구성됐다. 불경을 요약해 예서체와 전서체가 융화된 독특한 필체로 썼다.

9월 17~20일 경복궁 민속박물관서 전시 현대불교신문 후원

유품·사진자료 2백여점 국내 첫 소개 '탄생-수행-성불' 입체배치...등신불 개함과정 공개

이 전시회에서는 김교각스님의 탄생 수행 득도 육신불로의 성불 과정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전시품은 구화산 역사박물관과 안희성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자료 60여점과 구화산의 역사 박물관 관련 사료 및 유적탐방 자료 40여점과 사진 1백여점 등. 명나라 때 구화산 직성암에서 무하스님이 피로 쓴 《화엄경》 절경을 비롯 경전·서화·도장·항로·탁본·불상·탑·종·바루·도자기 등 다양한 한 폭폭이 구화산 지장신앙의 역사를 실감나게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구화산의 오랜

에서 재현한 조형물을 전통 기법 배치 양식을 도입해 입체적으로 진열. 전시효과를 살린 것도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전시장은 김교각스님의 탄생과 왕자로서 중국에 유학하는 장면을 입구에 배치하고 수행과정 득도과정 육신보살로 환생하는 과정 지장도량 화성사(化城寺)의 모습등을 순서대로 전시한다. 이어 "우리 곁에 온 지장보살" 코너에는 지장신앙에 대한 각종 자료를, "신상불국 구화산" 코너에는 구화산의 현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배치해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김교각전추진위는 "김교각스님의

지의 스님들과 중국불교협회, 안휘성 문화청 등의 고위 인사들도 대거 참가한다.

이번 전시회는 '신라왕자 김교각전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립민속박물관과 문화일보가 주관한다. 문화체육부 한국방송공사 불교방송 조계종 한국불교총연합회 서대문수교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신문사 주한중국대사관 보양은행 중국 안휘성 한중문화예술교류협회가 후원한다. (전시문의=722-4147 추진위, 313-3060 수호사)

임연태 기자



"김교각스님은 한국불교 자긍심이죠"

"1천 2백년이란 긴 세월을 중국에서 추앙 받아온 김지장보살님은 이제 국내 불자들에게도 지장신앙의 거울로 반짝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혼란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종교적 처방을 지장보살님을 통해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가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라왕자 김교각전'은 무구스님(수호사주지)의 오랜 서

원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님은 이 전시회가 지장신앙의 바른 이해와 구화산 김지장보살에 대한 국내 불자들의 자긍심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무구스님은 이번 전시를 위해 수차례 중국 구화산을 찾아 기도하고 협의하는 열의를 보여 왔다. 이번 전시를 위해 1천일간의 기도를 하며 남양주 백천사에서 지장보살의 방광을 체험하기도 한 스님은 작년에 《지장경》 3집3만권 보시운동에 동참했고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지장왕보살 김교각) 등의 단행본도 출간했다. 또 지난해 연말에는 구화산 인덕방광을 초청 국내에서 법회를 가져 주목 받았었다.

스님의 지장신앙 홍보에 대한 서원은 90년 입적한 성훈스님의 유지가기도 하다. 성훈스님은 조

국통일과 성불 중생구제의 원을 세우고 불자(佛子)를 썼다. 1차로 3집3만권을 쓰고 2차 27만권을 쓴 상황에서 성훈스님은 입적했다.

"성훈스님께서 여러차례 선종하여 3차까지의 나머지를 쓰라고 했지만 사에 문외한인 자료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형勢였습니다. 그래서 《지장경》 3집3만권 범보시의 원력을 세웠고 그 일을 진행하며 구화산과 인연이 닿아 이번 전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최근 구화산 화성사를 새롭게 중건한 전주자스님과 범일씨가 같은 인연을 비롯 5천여간 이 불사를 추진하는 동안 스님은 지장보살에 대한 많은 감화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그 감화를 개인적인 수행의 단편으로 여기지 않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지장보살의 덕화를 체험할 것 같아 열망하고 있다.

김교각전 추진위원장 김명운 의원

이번 '신라왕자 김교각전'은 한국과 중국간 불교문화교류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쾌거로 꼽힌다. 이번 전시를 위한 행정실무를 매끄럽게 이끌어 온 김명운위원장(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국회의원)은 "살아있는 지장신앙의 결실을 체험하는 계기"란 데 전시의 의의를 두고 있다. 김회장은 이 전시회를 준비하며 중국측과의 실무적 난제를



"살아있는 지장신앙 체험계기 되길"

을 원만히 풀었으며 국내 후원체 섭외와 기획 홍보등에도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우리의 선조가 중국대륙에서 성인으로 추앙 받아 오고 있다는데서 민족적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회장은 이번 전시회가 김교각스님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행하며 지대한 업적을 남긴 우리의 고승들에 대한 관심 고조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고승들이 해외에서 활약하며 쌓은 업적들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도 역사 바로세우기의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적 세계화란 우리의 높은 정신유산을 오늘에 되살리는데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는 종교문화적 세계화의 경건한 도량석이라 믿습니다."



명대 대장경 중국 현존하는 명 대장경의 가장 완성된 대장경. 수화(繪畵), 논장(論藏) 등 총 12부 6책77권, 6천7백71권.

불교소설의 진수 -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도 구도자가 됩니다.

KBS1.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된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

신용산 장편소설

9월 17일 개막, 경복궁내 민속박물관에서 '신라왕자 김교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전시회에 가보십시오, 감동이 배가 됩니다.

9월 17일 개막, 경복궁내 민속박물관에서 '신라왕자 김교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전시회에 가보십시오, 감동이 배가 됩니다.

지장왕 보살 김교각 스님 전기소설 나래 탄생 1300주년 신라출신 中 최초 등신불 - 조선일보-

지장왕보살 추앙 김교각 스님 전기소설, 컬러화보집 동시 출간 - 경향신문 -

'성불' 김교각 스님 일대기 소설 '대륙의 신라왕자' 발간 - 일간스포츠-

'대륙의 신라왕자' 김교각 스님 일대기 - 스포츠서울 -

지장보살 김교각! 입멸 후 1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왜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가?

그는 결코 왕자로서의 자존심과 구법승으로서의 겸허함을 잃지 않았다.

신국판/ 382쪽/ 값 7,000원

김교각 스님의 일생을 간략한 도움말과 함께 컬러 화보로 제작한 책

국판/104쪽 · 컬러 화보집 / 값 5,0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대륙의 신라왕자'와 '대륙으로 간 신라왕자'는同名입니다.

우리출판사 313-5047, 313-5056